

국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과 교육 - 소아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 동 훈

= Abstract =

Child raising and educat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in Korea: On the focus of infants

Dong-Hoon Seol, Ph.D.

Department of Soci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Chonbuk, Korea

Due to recent upsurge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the reinforcement of family structure, social integration support of marriage-based immigrant family have been the major social issues. This paper traces the current statu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nationwide.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status in international marriages, trait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heir attitudes towards child education, and presents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ir life quality. (Korean J Pediatr 2009; 52: 403-409)

Key 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Child raising, International migration

서 론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 문헌을 고찰하고, 표본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기로 한다.

본 론

1.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통계적 추이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그 전에도 국제결혼은 이루어졌지만, 정부가 1990년부터 국제결혼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는 점

을 고려하면, 그 무렵부터 국제결혼이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²⁾

Table 1에서 보듯이, 1994년 이전에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주류였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 1995년 이후에는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현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1995년에 국제결혼과 관련한 '이주변천'(migration transition)이 이루어졌다. 1994년까지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 여성들이 해외로 떠났고 극히 일부만 국내에 거주하였다면, 1995년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하였다. 특히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약 1만 건씩 늘어났다. 2005년 국제결혼 비율은 13.5%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³⁾. 그렇지만 국제결혼 건수가 총 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0%를 상회할 정도로 여전히 높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 등의 순이다. 외국인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와 생산기능직 종사자로 직종이 양분되고, 출신국도 선진국과 저개발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2008년 4월 기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수는 144,385명이다(외국인 102,713명, 귀화자 41,672명)⁴⁾.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Received : 24 March 2009, Accepted : 30 March 2009

Address for correspondence : Dong-Hoon Seol, Ph.D.

Department of Soci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1 Baekjero, Deokjin-gu, Jeonju-si, Chonbuk, 561-756, Korea

Tel : +82.63-270-2917, Fax : +82.63-270-2921

E-mail : dhseol@chonbuk.ac.kr

* The earlier draf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public hearings National Assembly of Korea, held by national assemblyman Hee-Mok Woo Conference Hall of the Korea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Jo November 27, 2008.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국내 외국인 인구의 증가율 추정치를 이용하여³⁾, 장래 결혼 이민자 가족 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중국·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2008년 4월 기준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수는 58,007명이다⁴⁾. 2006년 여성가족부 표본조사 결과, 이민자가 현재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중 미취학 아동 비율은 44.7%, 취학 아동은 55.3%였다²⁾. 최근 국제결혼이 집중된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 가족 자녀의 미취학률은 83.8%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것은 국제결혼이 2002년 무렵부터 급증한 것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2010년 72,029명, 2020년 142,254명으로 추정된다⁵⁾.

출신국별 가입기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많다²⁾. 외국인 결혼 이민자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을 보면, 필리핀(56.1%), 태국(34.5%), 우즈베키스탄(29.3%), 베트남(25.1%) 등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중국은 12.6%로 매우 낮다²⁾.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의 출산율이 특히 높은 것은 임신중절을 기피하고 고출산을 선호하는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태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출산율은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중국 출신 여성 이민자의 출산율은 매우 낮다. 그것은 중국 출신 여성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다른 나라 출신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상대자가 초혼보다는 재혼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민자의 47.2%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52.8%는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²⁾. 이민자의 평균 자녀 수는 0.7명인데,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평균 1.0명)가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평균 0.7명)와 남성 이민자(평균 0.5명)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 출신국별로는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의 자녀수

Table 2. Number of the Family Member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2006-2008 (Persons)

Year/ Sex	Total	Marriage-Based Immigrants		Childre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Foreigners	Naturalized Citizens	
2006	130,014	65,243	39,525	25,246
2007	171,213	87,964	38,991	44,258
2008	202,392	102,713	41,672	58,007
Male	46,539	13,711	2,991	29,837
Female	155,853	89,002	38,681	28,170

Table adopted from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8.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residents by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2008.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able 1.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1990-2008

Year	Total Marriages	International Marriages		Foreign Wives		Foreign Husbands	
		Cases	%	Cases	%	Cases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2,090	11,605	3.5	6,945	2.1	4,660	1.4
2001	318,407	14,523	4.6	9,684	3.0	4,839	1.5
2002	304,877	15,202	5.0	10,698	3.5	4,504	1.5
2003	302,503	24,776	8.2	18,751	6.2	6,025	2.0
2004	308,598	34,640	11.2	25,105	8.1	9,535	3.1
2005	314,304	42,356	13.5	30,719	9.8	11,637	3.7
2006	330,634	38,759	11.7	29,665	9.0	9,094	2.8
2007	343,559	37,560	10.9	28,580	8.3	8,980	2.6
2008	327,715	36,204	11.0	28,163	8.6	8,041	2.5
1990-2008	6,874,634	348,688	5.1	243,937	3.5	104,751	1.5

Table calculated from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Population dynamics (marriage and divorce) database. Daeje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가 1.8명으로 가장 많다.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 중에는 계획된 출산을 완료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다른 이민자 집단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민자의 출신국간 출산력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취학자녀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학자 수는 2008년 현재 총 18,778명으로 2007년에 비해 39.7%가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다⁶⁾. 2006년에 경기(23.1%), 서울(12.2%), 전남(11.8%), 전북(9.1%), 경북(6.0%)의 순이었던 것과는 달리, 2008년에는 경기(20.7%), 서울(12.0%), 전남(10.0%), 경남(8.2%), 충남(7.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양육과 교육

국내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에 관한 포괄적 실태조사는 매우 희귀하다. 그 까닭은 그들의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며, 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는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실시한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증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²⁾,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조사는 기존 조사 중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문항 개발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1) 이민자 가족의 자녀 양육 방식

이민자 가족도 일반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중요한 관심사로 설정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를 주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한 결과,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민자 조사 결과, “부부 공동 결정” 59.7%, “이민자 결정” 22.4%, “한국인 배우자 결정” 17.8%로 집계되었다. 그것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는 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민자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 빈도를 보면,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자녀와의 대화 빈도는 비슷한 수준이다.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한다”는 반응을 비교할 경우 이민자(44.3%)가 한국인 배우자(33.0%)보다 다소 높다. 그것은 이민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한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53.9%)가 도시 거주자(42.3%)보다 더 많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신국별로는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한다”는 비율이 75.5%에 달한다.

이민자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94.8%)이며, 본국어 사용비율은 14.1%이다. 선진국 출신의 남성 이민자만 자녀와 영어(53.8%)와 본국어(30.8%)로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나머지 이민자들은 동일하게 한국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패턴을 보인다. 이민자가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일지라도, 이민자들은 본국어와 한국어를 종종 섞어서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민자가 그들의 자녀와 본국어로 대화하는 빈도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이민자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본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7%이다(“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7.7%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1.0%). 그렇지만 “본국어를 사용하는 편이다”라는 응답도 41.3% 있다(“가끔 사용한다” 30.0% + “자주 사용한다” 6.8% + “항상 사용한다” 4.5%). 중국 조선족 출신 이민자는 자녀와 대화할 때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은 종종 본국어를 섞어 쓴다. 이민자의 대다수가 여성 즉 어머니이므로, 모자간의 대화에서는 한국어와 본국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지체되고, 자녀의 어머니 나라 말 실력 또한 한계에 봉착하여, 의사소통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 난관을 뚫는 일이 이민자 가족에 던져진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다.

이민자 자녀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부적응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평균 점수를 보면, “학교 · 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으려 한다” 1.71점, “혼자 있

Table 3. Future Population Estimates of the Family Member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2009-2030 (Persons)

Year/ Sex	Total	Marriage-Based Immigrants		Childre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Foreigners	Naturalized Citizens	
2009	226,780	115,090	46,693	64,997
2010	251,315	127,541	51,745	72,029
2011	275,888	140,012	56,805	79,071
2012	300,415	152,459	61,855	86,101
2013	324,846	164,858	66,885	93,103
2014	349,182	177,208	71,896	100,078
2015	373,463	189,531	76,895	107,037
2016	397,761	201,862	81,898	114,001
2017	422,147	214,238	86,919	120,990
2018	446,687	226,691	91,972	128,024
2019	471,415	239,241	97,063	135,111
2020	496,338	251,889	102,195	142,254
2021	521,777	264,799	107,433	149,545
2022	547,625	277,917	112,755	156,953
2023	573,758	291,180	118,135	164,443
2024	600,047	304,521	123,548	171,978
2025	626,364	317,877	128,967	179,520
2026	652,589	331,186	134,366	187,037
2027	678,613	344,393	139,725	194,495
2028	704,333	357,446	145,020	201,867
2029	729,670	370,304	150,237	209,129
2030	754,566	382,939	155,363	216,264

The figures were calculated by Dong-Hoon Seol. He adopted the future foreign population growth rates from Ministry of Justice, and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of foreign residents. Gwacheon: Ministry of Justice.

는 것을 좋아한다” 1.70점,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1.64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1.99점이다.

2) 아동의 건강과 지능발달 및 학습능력

이민자 자녀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98.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발달지체” 0.9%, “심신장애” 0.2%, “중대 상해·질병” 0.2%의 순이다²⁾. Table 5에서 이민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보면, 남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중에서 발달지체를 겪는 비율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발달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⁷⁾, 미취학 연령인 5-6세 아동의 평균 지능지수는 85.59, 초등학교 1-2학년인 7-8세 아동의 평균 지능지수는 90.04로 나타났다. Table 6에서 지능을 언어지능과 동작지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작지능은 한국인 아동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으나, 언어지능은 현저히 낮다. 미취학 아동의 언어지능은 81.22, 취학 아동의 언어지능은 88.15다. 초등학교 이후 언어지능 발달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능검사가 조사대상의 평균을 100으로 표준화한 것임을 고려하면, 결혼이민자 자녀의 지능이 일반 한국인 아동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

지만 취학 이전 단계의 아동들에 비해 취학 아동의 지능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능지수가 69이하인 아동의 비율은 미취학 아동 12.4%, 취학 아동 7.9%로 나타났고, 지능지수 70-79인 비율은 각각 19.1%와 7.9%로 나타났다. 언어지능만 살펴보면, 지능지수 69이하인 아동의 비율은 미취학 아동 22.5%, 취학 아동 7.9%이고, 지능지수 70-79인 비율은 각각 21.3%와 14.5%이다. 일반 한국인 아동보다 인지 발달이 늦은 아동이 일부 있음을 고려하여, 그들의 인지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 자녀’의 교과목 수행 능력을 학급 담임 교사에게 평가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⁸⁾ Table 7에 의하면, 국어 교과목의 경우 교사의 50% 이상이 학생들의 능력이 ‘상’이라고 응답하였고(말하기 57.0%, 듣기 60.3%, 쓰기 46.9%, 읽기 59.6%), 능력이 ‘하’ 수준인 학생은 ‘쓰기’(16.3%)를 제외하고는 10%미만으로 나타났다(말하기 8.3%, 듣기 6.5%, 읽기 7.3%). 수학, 과학,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능력 수준을 ‘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학 41.2%, 과학

Table 4. Number of Students of the Marriage-Based Immigrant Family, 2008 (Persons)

	Total	Urban Areas			Rural Area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Nationwide	18,778	10,598	8,531	1,495	572	8,180	7,274	718	188
Seoul	2,259	2,259	1,813	319	127	-	-	-	-
Busan	770	770	634	92	44	-	-	-	-
Daegu	456	387	340	33	14	69	63	5	1
Incheon	662	627	527	65	35	35	33	2	-
Gwangju	439	439	394	28	17	-	-	-	-
Daejeon	327	327	249	61	17	-	-	-	-
Ulsan	264	152	125	20	7	112	95	10	7
Gyeonggi	3,878	2,584	2,010	417	157	1,294	1,081	159	54
Gangwon	1,005	333	270	50	13	672	613	45	14
Chungbuk	994	277	244	27	6	717	634	61	22
Chungnam	1,476	464	333	93	38	1,012	902	92	18
Jeonbuk	1,384	470	402	55	13	914	833	76	5
Jeonnam	1,869	354	285	46	23	1,515	1,390	90	35
Gyeongnam	1,292	370	301	50	19	922	849	60	13
Gyeongbuk	1,530	676	514	125	37	854	725	112	17
Jeju	173	109	90	14	5	64	56	6	2

Table adopted fro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Education support plan for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2008.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able 5. Health of the Childre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2008 (% , N)

Interviewees		Good health	Developmental disorder	Handicapped	Serious injury or disease
Total	(845)	98.6	0.9	0.2	0.2
Foreign wives	(788)	98.6	0.9	0.3	0.3
Foreign husbands	(57)	98.2	1.8	0.0	0.0

Table adopted from Seol DH, Lee HK, Cho SN.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 114.

39.5%, 사회 34.4%로 국어에 비교할 때 낮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자들이 “현재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고려하면, 대중매체에 소개된 인지 발달이 늦은 몇몇 아동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여야 마땅하다. 즉,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지 발달과 학습능력이 일반 한국인 아동보다 약간 처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 많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미취학 연령 자녀의 보육 실태

낮 시간대 이민자의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주로 “이민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68.5%)이 직접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23.7%), “유치원”(22.1%) 등의 순이다. 또한 “양육자 혹은 양육기관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응답이 7.2%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의 14.5%는 “양육자 혹은 양육기관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자에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중 가장 주된 것을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청한 결과, 이민자들은 “이민자 본인·배우자 혹은 기타가족이 주로 아이를 양육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44.0%),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 10.0%, “유치원” 7.2%의 이용률을 보인다. “양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응답도 38.1%로 집계되었다. “양육 지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

는 응답 비율은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경우 70.9%로 단연 높다.

이민자의 자녀 양육 관련 고충 사항을 질문한 결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가장 높다. 그렇지만 “한국어 소통능력의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29.9%),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교육비 등의 지출이 힘들”(22.9%),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11.3%), “아이 돌봐줄 사람과 보육시설이 없음”(8.9%)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민자들이 느끼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와 의사소통 혹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46.1%)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또래 아이들의 부모 모임”(32.1%)이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민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대상 교육”(8.5%)과 “이민자 나라말로 된 보육 관련 자료”(7.7%)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4) 학령기 자녀의 교육 실태

이민자 가족의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이민자의 59.8%, 한국인의 64.4%이다. 이민자보다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민자 가족의 자녀 학교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남성 이민자(80.0%)가 여성 이민자(58.3%)보다 더 높다.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62.3%)가 도시 거주자(56.8%)보다 더 만족도가 높다.

이민자의 취학자녀 중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비율은 11.5%이다. 여성 이민자의 자녀(12.1%)가 남성 이민자의

Table 6. IQ Score of the Childre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2008

	Descriptive Statistics of IQ Score					Distribution of IQ Score			
	Mean	S.D.	Min	Max	Range	Below 69 (%)	70-79 (%)	80 and over (%)	
Age 5-6 (N=89)	Total	85.59	14.22	48	123	75	12.4	19.1	68.5
	Motion	92.27	19.79	11	132	121	10.1	11.2	78.7
	Language	81.22	15.02	15	117	102	22.5	21.3	56.2
Age 7-8 (N=76)	Total	90.04	15.9	50	120	70	7.9	7.9	84.2
	Motion	94.32	17.26	50	127	77	7.9	2.6	89.5
	Language	88.15	15.3	50	118	68	7.9	14.5	77.6

Table adopted from Jeon HJ, Min SH, Yi MY, Choi HY, Chang SJ, Cho ES. 2008. Survey of the childre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 support program for their sound raising.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p. 7-9, 17-20, 22.

Table 7. Scholastic Aptitude of the Childre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Evaluated by School Teachers, 2008 (%)

(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thematics (1,396)	Science (1,171)	Social Studies (1,142)
	Speaking (1,390)	Listening (1,387)	Writing (1,394)	Reading (1,393)			
Upper	57.0	60.3	46.9	59.6	41.2	39.5	35.4
Middle	34.7	33.2	36.8	33.1	38.3	44.2	45.4
Lower	8.3	6.5	16.3	7.3	20.5	16.4	19.3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adopted from Lee JB, Kang SB, Kim HW. 2008. A research on the educational status abou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famil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pp. 129-130.

자녀(5.3%)보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

이민자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5.3%에 달한다. 흔히 “왕따”라 불리는 집단 따돌림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므로, 그 발생 현황과 원인을 주도면밀히 밝혀내야 한다. 남성 이민자 자녀(14.8%)가 여성 이민자 자녀(4.4%)보다 더 많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출신의 남성 이민자 자녀 중 42.9%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로, 이민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35.3%),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26.5%), “다른 아이와 다른 내 아이의 외모 때문에”(20.6%),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출신이라”(20.6%),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달라서”(14.7%) 등을 지적한다.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 당한다”고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42.9%). 이민자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혼혈” 또는 “외모 차이”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이 매우 많다.

이민자 부부가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은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최우선 순위로 희망하고 있으며(각각 59.7%, 55.6%), 그 다음으로 이민자는 “다문화 교육”(15.0%)과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13.1%)을, 한국인 배우자는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20.5%)과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14.1%)을 주로 희망한다. 여성 이민자는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62.2%)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반면, 남성 이민자는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38.5%)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바란다.

이민자의 취학 자녀들의 방과 후 보육 또는 교육은 “본인·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담당하는 것이 5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설학원”(14.0%),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7.4%) 순으로 많다. “보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21.8%로 높다. 여성 이민자의 취학 자녀 중 “보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을 거주지별로 비교하면, 도시 거주자의 경우 그것은 22.6%로 농촌 거주자의 10.7%보다 훨씬 높다. 그러한 결과는 도시 거주 이민자 가족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비율이 높고, 또 작업장이 거주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취학중인 이민자의 자녀들의 방과 후 학업 지도자로는 “이민자 본인”(48.6%)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 교사·학원교사”(13.6%), “한국인 배우자”(9.5%) 등의 순이다. 여성이 자녀의 학업을 주로 돌보는 패턴이 일반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이민자 가족에서도 발견된다.

취학자녀의 학업지도를 부모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민자는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37.1%)와 “생업에 바빠서”(30.3%) 및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18.0%)를 주로 지적하고, 한국인 배우자는 “생업에 바빠서”(60.1%)와 “지식 수준이 낮아서”(19.1%) 및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13.3%)를 주로 꼽는다.

이민자가 자녀의 학업지도를 못하는 이유로는, 여성 이민자는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39.7%)라는 의견이, 남성 이민자 집단에서는 “생업에 바빠서”(45.5%)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44.3%)가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23.5%)보다 더 많이 “자녀의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는 대개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68.8%) 자녀의 학업지도를 못한다.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69.8%가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

결론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성인이 될 경우 한국 사회의 주류로 편입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미국 대통령처럼 성공 신화를 기록할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외모·배경 등의 요인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⁹⁻¹¹⁾ 그들의 가족이 ‘상대적 빈곤 계층’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못하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가족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일 정도로 경제적 지위가 낮다.¹⁾ 그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주한미군 관련 혼혈인”들이 겪어 온 “가난과 따돌림 → 높은 학교 중도 포기율 → 높은 실업률 → 빈곤과 주변적 삶”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그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²⁾

그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수적이다. 빈곤 때문에 교육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10월 30일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대책은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정책대상별로 ①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②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③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④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다. 정책방향은 ①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체계화 ② 가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③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다.¹³⁾

한편,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일반 한국인 소외계층으로부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 그들을 구호 대상 집단으로 설정함에 따라 발생한 “고정관념”도 방지해서는 안 된다.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가해지는 각종 차별과 편견 및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사회 전체적 노력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1) Seol DH, Kim YT, Kim HM, Yoon HS, Lee HK, Yim KT, Chung KS, Ju YS, Han GS. 2005. Foreign wives' life in

-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 Seol DH, Lee HK, Cho SN.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3)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Population dynamics (marriage and divorce) Database. Daeje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4)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8.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residents by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2008.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5) Ministry of Justice, and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of foreign residents. Gwacheon: Ministry of Justice.
 - 6)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Education support plan for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2008.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7) Jeon HJ, Min SH, Yi MY, Choi HY, Chang SJ, Cho ES. 2008. Survey of the childre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 support program for their sound raising.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8) Lee JB, Kang SB, Kim HW. 2008. A Research on the educational status abou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famil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9) Jo HY, Lee CH, Kwon SH, Seo DH, Lee EH. 2007. School lif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receptiveness of teachers and students.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0) Lee SS, Park JS, Kim PS, Kim HS. 2007. Marriage and birth behavior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policy and measur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1) Kim YJ, Cho AJ, Lee JY, Choi HM. 2008. Welfare policy toward multicultural age: On the focus of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2) Seol DH. 2007. Sociology of the "mixed-blood": Hierarchical nationhood of the Koreans. *Journal of the Humanities* 52: 125-160.
 - 13)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Measures of enhancing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ir life cycle.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